



쇠고기 매장 '썰렁'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논란이 확산되면서 광주 시내 한 할인점의 수입 쇠고기 판매대에 고개 발길이 뜸 끊겼다. 특히 AI(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닭·오리고기 판매마저 급감, 유통매장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영산강 뱃길 복원 '탄력'

黨政, '대운하' 개념 전환... 4대 강 뱃길 정비부터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뱃길 정비 및 수질 개선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9일 한나라당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여권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우선 뱃길 복원 및 수질 개선 방향으로 수정 접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여론의 저항이 적은 '기존 뱃길 정비'부터 시작하고 운하로서의 모습이 갖춰지는 '연결 공사' 부분은 계속 논의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3일 정두언 의원의 오찬 회동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한강 개발과 같은 재정비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땅을 파야하는 연결 부분은 계속 논의해야 한다'는 건의를 접한 뒤 '검토할 만 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의 아이디어는 대운하 반대 여론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 지역 한강 개발의 성공 모델을 한강의 다른 유역과 나머지 3대 강 유역에 적용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면 여론의 거부감이 약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단 4대 강의 바닥을 준설하고 강변을 개발, 수질 개선과 동시에 선박 운항을 가능케 한다면, 국민 여론이 좋아지면서 4대 강을 서로 연결하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반감 역시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국책사업지원단을 부활시켜 대운하 사업을 전담시키는가 하면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경제성 분석 용역에 들어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I·광우병 공포... 육류 소비 '패닉' 수준

축산농·유통업체·식당 총체적 위기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전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논란이 확산되면서 축산농가 뿐 아니라 유통업체, 음식점 등이 심각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축산농가들은 AI와 광우병 우려 여파로 소값이 떨어지고, 닭·오리 판매량도 급감하는 상황인데다 기름과 사료값까지 올라 사실상 손실을 보는 형편이다. 여기에다 '먹을거리 공황'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쇠고기와 닭, 오리고기를 외면함에 따라 음식점이나 유통업체들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다.

19일 농협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한우 소비자가 가격의 경우 갈비(1등급·500g)는 전달보다 820원(2.4%) 내렸으며, 등심도 1천505원(4.7%) 떨어졌다. 산지 한우가격도 곤두박질쳤다. 갈비는 2천원→450만원(3.8%), 양송이(마리)는 181만5천원→168만2천원(7.3%) 내린 가격에 거래됐다. 그러나 거래량은 지난달에 비해 절반 넘게 곤두박질했다.

나주 축산농민 K모(56)씨는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사료값이 40% 가까이 올라 생산비만 20~30% 상승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논란에 따라 산지 한우가격은 물론 한우 거래량까지 급감해 소 사육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걱정했다.

같은 날 광주시 북구 유통 '오리탕 골목' 뿐만 아니라 동구·서구 급창전문점 등 식당가는 점심시간인데도 썰렁한 모습이었다.

J오리탕 대표는 "AI가 퍼들기 전인 올 초까지만 해도 점심 한때에만 40~50마리의 오리를 팔았는데, 요즘에는 겨우 5~6마리 파는 정도"라며 "20여년 해오던 장사라 겨우 문만 열어놓고 있는 상태"라고 푸념했다.

동구 A급창전문점도 "방송에서 광우병 문제를 다룬 뒤로 손님이 평소의 3분의 1로 줄었다"면서 "아무래도 다른 업종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정은 유통업체도 마찬가지다. 광주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16일 현재 전남산 H한우(최상급 안심·100g)는 8천450원으로, 2주 전에 비해 200원(2.3%) 떨어진 가격에 거래됐다. 반면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35%나 감소했다. 광주신세계이마트와 홈플러스도 지난주 일주일 동안 쇠고기 매출이 평소 대비 7%나 줄었다.

쇠고기 중간유통상인 J(나주·56)씨는 "지난해까지 정매로 나온 한우를 한 달에 300여 마리 넘게 거래했다"며 "그러나 최근 판매가가 마리당 20만원 내렸는데도 거래량은 되레 10%나 감소했다"고 말했다.

포다름 B(화순·62)씨는 "거래처는 매출 부족을 호소하며 구입량을 크게 줄인데다, 학생들이 광우병 우려로 한우마저 외면해 학교급식 공급량마저 뜸 떨어졌다"고 걱정했다.

농협전남본부는 "닭·오리의 경우 익혀 먹으면 아무런 해가 없는데도 인식이 잘못돼 기회하고 있다"며 가금류의 안전성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러 대통령이 나서는데 차관이 가셔야...

"U대회 총회 총리라도 참석을"

광주 당선자 간담회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총회를 11일 앞두고 한국 정부의 개최 지원 의지를 적극 전달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총회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2·5면〉

19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간담회에서 당선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두 차례나 광주 U대회 유치에 대한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이렇다할 후속 조치가 없다"며 "더욱이 총회에 정부 대표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보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이날 "러시아는 최근 FISU 실사과정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직접 크렘린궁으로 실사단을 초청, 접견했다"며 "오는 3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U대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총회에 정

부측 인사로는 문광부차관이 참석할 예정이지만 러시아는 (타타르스 탄공화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김영진·강운태 등 8명의 당선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총회에 주무장관도 아니고 차관이 참석토록 한데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면서 "대통령이 못간다면 한승수 국무총리라도 참석해 정부 지원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선자들은 국무총리의 FISU 총회 참석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키로 했다.

한편 2013 하계U대회 광주 유치위원회는 19일과 20일 서울에서 최종 전략 점검회의를 갖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社 告

국가균형발전 정책 토론회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가 가시화되면서 국가균형발전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대폭 추진으로 잡혀가며 지방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을 위한 정책이 후퇴하며 수도권과 지방과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돼 지방은 침체와 공동화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에 따라 광주

일보사를 비롯한 전국 9개 유력 지방신문사 연합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수도권과지방발전 전국연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 국가균형발전이 시대적 과제를 알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 일시 : 5월 21일(수) 오후 2시~오후 6시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 주최 : 한국지방신문협회, 수도권과지방발전전국연대
- 주관 : 수도권과지방발전전국연대
- 후원 : 지역균형발전협의회·광주발전연구원·전남발전연구원

光州日報社

한·미 쇠고기 검역주권 명문화 합의

정부 오늘 브리핑

정부는 19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주권을 명문화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관련기사 3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이 같은 내용의 브리핑을 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측과 협의를 최종 마무리가 되지 않아 브리핑을 20일로 연기했다.

20일 발표된 내용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검역주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쇠고기 협정문에 명문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측은 지난 주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추가 협의를 벌여 검역주권의 명문화라는 큰 틀에 합의

한 뒤 이를 협정문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을 막판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양측이 협정문 자체를 고치는 재협상 형태가 아닌 추가 합의 형태로 논의했으며 따라서 검역주권 등을 추가로 보장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0일 영수회담을 갖는다. 〈관련기사 3면〉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오후 "청와대 박재완 수석이 손 대표를 방문해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와 이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 대표 측 관계자는 "일단 조한 형식으로 회담이 이뤄질 것"이라며 "쇠고기협상 등 국정 전반에 관한 이야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추대통령·손학규대표

오늘 영수회담

이명박 대통령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0일 영수회담을 갖는다. 〈관련기사 3면〉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오후 "청와대 박재완 수석이 손 대표를 방문해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와 이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 대표 측 관계자는 "일단 조한 형식으로 회담이 이뤄질 것"이라며 "쇠고기협상 등 국정 전반에 관한 이야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34만개 일자리 창출

15년간 200억불 대미수출 증가

10년간 GDP 6% 상승

300억불 외국인 투자 유치

지금 누리세요! FTA 효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올 혜택입니다

한미 FTA는 지금 꼭 필요합니다
경제살리기 더 늦출 수 없습니다

경제개발부 FTA추진위원회